

성명 : _____ 최초 : _____ 자

호두까기인형

호프만

어느 크리스마스 날, 마리라라는 소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엔 호두까기인형이 있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은 호두를 입안에 넣고 깨는 기술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오빠인 프란츠가 심술을 부렸어요. 호두까기 인형을 고장 내줬어요.
"이를 어찌! 어쩔 좋아!"
마리는 망가진 호두까기 인형을 만지며 울었어요.
그날 밤, 마리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 속에서 생쥐들이 쳐들어오지 뭐예요. 하지만,
"기다려라, 이 생쥐들아!" 하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온 건 바로 호두까기인형이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은 생쥐들과 싸웠어요.
"우리도 힘을 합쳐 호두까기인형을 돕자!"
이번에는 병정 인형들이 나타나 생쥐들을 공격했어요.
마침내 생쥐 여왕이 죽자, 주위가 환해지지 뭐예요.
그리고 호두까기인형은 금발 머리 인형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본래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생쥐들을 죽이자,
생쥐 여왕이 우리들에게 마술을 부렸어요. 우리들을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야 마리아가씨의 도움으로 본래의 왕자와 공주로 변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마리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마리아가씨를 과자의 나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탕과 초콜릿과 크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으로 가지지요."
"어머, 좋아라!"
그런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 마리아! 빨리 일어나거라!"
엄마 때문에 마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책상 위에 호두까기인형과 금발 머리 인형이 보였어요.
마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현재 : _____ 자 향상도 : 약 _____ 배

꿈에 나오는 점정소

중국민화집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약삭빠르고 교활한 게으름뱅이
이고, 아우는 올곧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에는 점정소 한 마리가 있
는데, 아우가 소를 잘 거두어 주었으므로 소도 아우의 말을 잘 들었습니
다. 밭을 갈 때면 달리듯이 쟁기를 끌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는 한꺼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윽고 삼칠일에 탈상도 마쳤습니
다. 바로 그 탈상 날 밤의 일입니다. 아우가 자고 있는데 점정소가 문을
열고 들어와 영똥한 말을 했습니다.
"분가해서 재산을 나눌 때, 소만 가진다면 아무 일이 없다."
아우는 소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자 주위가 캄캄해서
꿈을 꾸었음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가려는데 형이 왔습니다. 형은 무슨 일이 있든 분
가를 해야 한다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우가 하는 수 없이 승낙하자 형
은 그날 안으로 친척들을 불러모으고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금은보화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가게의 물건들은 아버지가
내게 남겨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집과 밭은 약간
나눠주마. 연장도 갖고 싶으면 몇 개 가져가도록 해라."
그때 아우는 점정소가 한 말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소가 있어도 쓸데가 없었으므로 아우에게 소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친척들은 그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
나, 그렇게 말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돌아 서서 살그머니 "형은 교활하고, 동생은 너무 욕심이 없어."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형은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하고 나자 매일 같이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빈둥빈둥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안 되어 집 안이 텅텅 비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아우는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했으므로
살가마가 공간에 넘칠 정도로 잔뜩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는 또 김정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소가 울면서	735	그래서 아우가 자루를 지고 장에 가자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형은 샘	1501
말했습니다.	740	이나 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1528
“소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땀을 땅에 묻으면 그것으로 죽하다.”	765	“이 대추나무는 우리 두 집의 것이다. 한테 네 뉘은 벌써 다 사용했으므	1537
이튿날 아	785	로 나머지는 내 것이다.”	1567
침, 형이 화를 내며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810	아우는 형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은 목수를 데려다가 낫자루를	1596
“김정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니 너 혼자의 것이 아니다. 팔아	821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둬 무렵에 낫자루를 짊어지고 온 마을로	1614
서 돈을 나눠 갖도록 하자.”	850	팔러 다녔지만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643
아우는 형의 기세에 놀려 그러자고 했습니다. 형은 곧 외양간으로 달려가	880	이듬해 여름에도 팔러 다녔으나 역시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	1672
소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	908	자 형은 울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낫자루를 전부 아궁이	1686
에는 형을 뿔로 받아 쓰러뜨렸습니다. 화가 난 형은 소를 죽여서 가죽은 팔	936	에 집에 넣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1715
고, 고기는 먹고, 땀을 거름통에 버렸습니다. 아우는 울면서 그 땀을 모아	950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불질이 점점 커져서 순식간에 집을 태우고 집	1730
마당 한가운데 묻어 주었습니다.	978	주인인 형까지 타죽게 했다고 합니다.	
머칠이 지난 후 쇠뿔을 묻은 자리에서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싹트었습니다.	1006		
아우는 대추나무를 보자 죽은 김정소가 생각나서 매일같이 물과 거름을 주	1035		
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나무는 나날이 자라서 마침내 쳐다봐야 할 정도로 큰	1044		
나무가 되었습니다.	1073		
이윽고 가을이 되자 월 듯이 열매가 달렸습니다. 더구나 그 열매는 크기가	1102		
계란만 하고 잘 익어서 매우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대추를 바구니	1129		
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습니다.	1157		
“대추나무는 우리의 마당 한가운데 난 것이므로 너만 혼자 돈을 번다는 건	1172		
말이 안된다. 내년에는 내가 벌겠다.”	1182		
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1201		
아우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승낙을 했습니다.	1230		
그런데 형은 대추나무가 자랄 봄이 돌아왔는데도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주지	1259		
않았습니다. 오직 대추가 열리면 돈을 받고 팔 궁리만 했습니다. 가을이 되	1287		
어 대추가 열렸으나 알이 작고 얼마 되지 않는 데다 모두 벌레 먹은 것 뿐	1293		
이었습니다.	1319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대추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렸습니다.	1341		
그날 밤, 또 아우의 꿈에 김정소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1367		
“대추나무를 잘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낫자루를 만들어 팔면 된다.”	1396		
아우는 김정소의 말대로 대추나무를 반만 잘라, 그것으로 여러 개의 낫자루	1404		
를 만들었습니다.	1433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다시 여름에 접어들자 보리의 대풍작이 예상되	1462		
었습니다. 수많은 낫이 시장에 깔렸지만 날만 있고 자루가 없었습니다	1491		